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선한 청지기, 48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단

“복음의 감격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광림교회는 2025년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골 1:27)라는 신앙의 목표로 한 해를 시작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증가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림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청지기주일로 삼는다. 올해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청지기들을 임명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비전과 한 해의 목회 방침을 설명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임원 전지훈련을 실시해 주신 직분을 통해 헌신을 다짐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1, 2차 임원전지훈련에서 “복음의 감격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임원전지훈련 1차(집사)는 1월 8일~9일까지 김종필 감독(중앙연회), 2차(권사)는 1월 15일~16일까지 유병용 감독(서울남연회)을 강사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유 감독은 “직분자의 삶은 주님을 위해 드러지는 삶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직,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1월 12일, 청지기주일에는 한 해 동안 주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할 48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할 남·여 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짐하며 올해 선교 비전과 계획을 전했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2025년 목표를 ‘빛의 중심-남선교회’로 정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주 안에서 새롭게, 세상에 빛 되게하는 선교공동체로 나아간다. 4월 26일(토) 전교인 체육대회를 비롯해 군선교의 중심에 서서 8월 13일(수)에는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올해 ‘더 영적으로, 더 협력하여, 더 즐겁고 기쁜’을 영적 목표로 헌신을 다짐했다. 4월 22일(화) 열리는 선교바자회와 성전 사랑 캠페인, 가계선교회 연합 모임 등을 계획하며 선

교회원 모두 평생 선교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실업인선교회(회장 안경섭 장로)는 ‘섬기며 세워가는 신앙공동체’로 2025년 회원의 영적 성장과 친교, 경영 정보 공유와 세미나 등을 통해 더욱 영성을 강화한다. 교회 선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피지 선교 및 안디옥개신교회 성전 건축을 지원한다. 회원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부흥 성장을 위한 심방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기록되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은 낡아져만 갑니다. 건강과 지위도, 그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 영속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다분히 이중적입니다. 후퇴해 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는 다가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삶일진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질그릇’, 10절에 나오는 ‘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죽을 육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제한적이며 현재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을 옛사람이라 한다면,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물질적이며 물량적인 것은 점점 낡아지거나 후퇴해 가지만, 영적이며 미래적인 것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단순히 새로운 존재로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영적인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옛사람의 모습들, 물질적이고 물량적이며 제한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요, 목표



고린도후서 4:16~18
16.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 더 나아가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

본문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어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일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무게는 다른 그 어떤 것의 무게보다 무거워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귀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더 나아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본문 말씀처럼 고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넘어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중한 것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창조합니다. 그렇기에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돌아볼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응답하며 사는 인생, 여기에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

본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돌아본다’라는 말로써 헬라어 원어로 ‘스코퐁톤’(σκοπουειν)이며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에 도래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며 물질적인 세계는 소멸되어 가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난 후의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유한한 육체를 입고 환난이 현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멀어져 가는 저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2025 성가대 임명예배, 844명의 성가대원 임명



지난 1월 19일(주일) 저녁 7시 30분, 본당 대 예배실에서 성가대 임명예배가 있었다. 음악위원회 위원장 장대진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레위지파의 소명, 충성 그리고 영광'(신 10:8-9)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상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예배에 미가엘성가대 136명, 미가엘앙상블 8명, 나사렛성가대 135명, 나사렛오케스트라 41명, 갈릴리성가대 162명, 갈릴리오케스트라 45명, 남성성가단 65명, 여선교회성가대 87명, 여선교회성가대앙상블 5명, 남교회 가나안성가대 43명, 남교회 가나안오케스트라 8명, 남교회 새하늘성가대 50명, 남교회 새하늘오케스트라 14명, 북교회 시온성가대 13명, 북교회 브니엘성가대 9명, 동탄광림교회 갈릴리성가대 22명, 동탄광림교회 갈릴리

앙상블 1명으로 총 844명의 성가대원이 임명되었다. 성가대원 시상식에서는 모범 대원 23명을 표창하였고 은퇴 대원으로 미가엘성가대의 공연희 권사, 임현규 권사, 김진수 권사, 갈릴리성가대의 김예순 권사, 신순혜 권사, 이영희 권사 등 총 6명에게 재직패가 수여되었다.

또한 미가엘성가대 김종선 권사, 나사렛성가대 노진철 권사, 배덕은 집사, 김혜정 권사, 갈릴리성가대 이상용 장로, 남성성가단 김철환 권사, 허훈 권사, 여선교회성가대 김향자 권사가 40년 근속패를 받았다. 30년을 근속한 미가엘성가대 정명숙 권사, 나사렛성가대 김재성 집사, 김희성 집사, 갈릴리성가대 오진숙 권사, 여선교회성가대 이정혜 권사, 이정희 권사, 장점숙 권사 등 총

15명에게 근속패가 수여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성가대원은 레위지파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신앙고백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사명이 있다"고 하며 성가대원이 지켜야 할 덕목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성가대에 결석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가 연습을 대충해서는 안 되고 많이 연습해야 한다. 셋째, 수요예배에 나와 수요 성가 연습에 참석하도록 한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여 감동이 되어야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게 된다.

이에 덧붙여 "광림교회는 고전 성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 성가의 장르를 들여와 선곡하여 성가대에서 조화로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다. 또한, 교회 성가에서 광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오르간을 예배에 함께 참여, 시도함으로써 교회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의미에서 귀한 예배의 전통을 중시 여기는 광림교회 성가대는 한국교회 성가대의 역사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임명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가대원들은 다시금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충성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변영혜 기자

포토 뉴스



2025년 남·여·실업인선교회 및 각 위원회 신년하례회 1월 25일(토) 오후 5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사이닝스쿨 겨울성경학교 '고백(告白), Go Back'이란 주제로 1월 20일~21일 사이닝스쿨, 1월 22일~23일 비전랜드에서 열렸다.



명절 가정예배문 설 명절 예배를 위한 가정예배문이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장로가 되길

1월 21일 ~ 22일, 장로세미나 열려



2025년 장로세미나가 1월 21일(화) ~ 22일(수) 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첫 시간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방연상 교수의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선교는 번역(Translation)과 순차적 진행(Serial Progress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Succession)과 쇠퇴(Recession)을 통해 발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로마, 북유럽을 거쳐 아시아 까지 모든 교회를 부르고 계시며, 글로벌 사

우스(Global South)에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유익한 특강이었다.

43명의 시무장로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이번 장로세미나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특강과 기획위원회 회의, 장로 월례회, 성찬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김정석 감독회장은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들이 교회가 우선인 삶,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삶,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삶을 사는 장로가 되어서 자발적으

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로가 되어주길 바란다. 바르실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김함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광림의 장로들도 바르실래와 같이 섬김의 장로들이 되어 달라"(삼하 19:38)고 당부했다.

장로 월례회에서는 장로들이 올해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이어진 순서에서 은퇴하는 유선례 장로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무장로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감독회장 동정



- 1/15~16 임원전지훈련 2차
- 1/19 사단법인 광림총회 성가대임명예배
- 1/21~22 장로세미나
- 1/25 남·여·실업인선교회 및 각 위원회 신년하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의료선교위원회 멕시코 선교 보고 및 신년 예배



광림교회 의료선교회(위원장 정하원 장로)는 지난 1월 11일(토) 오후 5시, 베테스다홀에서 2025년 의료선교회 신년 예배 및 멕시코 선교 보고 예배를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불러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초기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적 특성은 교회의 설립이 의료와 교육으

로 전도가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일깨우며 1981년 누가선교회로 시작된 광림의료선교회의 사역을 격려했다. 마태복음 9장 9절 ~ 13절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치유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선포하였다.

홍석진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 이성곤 권사가 제작한 멕시코 유카탄 선교대회를 영상으로 보고 받으며 지난 10월 멕시코 유카탄 한인 및 중남미 선교사대회 의료 봉사 현황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효현 권사가 2024년 활동 보고를 통해 월례회 주보 형식 변경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배 중 상시 의료 상담 진행 상황 및 다수 기관에 구급상자 전달, 교회 주관 행사 동참, 교육 프로그램 '브라운 백 미팅' 도입 소식 등을 공유했다.

또 감리회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 등의 2025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감리 교단 해외 선교사 의료 지원 사업은 김진섭 장로가 의료 환경이 열악한 현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 및 선교사 건강관리

체계화와 의료지원에 따른 행정 처리 및 의료지원 대상 선교사의 합리적 분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도입 의의를 설명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고 선교사는 교단 총회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에 제시하고 도움을 얻는 방안과 진료비 할인 혜택 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지하였다.

광림의료선교회는 국내 교회 중에서 최초로 설립된 의료선교회로서 무의촌 진료 및 해외 선교를 지속적으로 행하며 주신 소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회이다.

광림의료선교회는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고 돌봄과 섬김의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남현아 권사(의료선교위원회 서기)

설날 앞두고 사랑의 돌봄 행사 가져

1월 22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장천홀 로비에서 열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1월 22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장천홀 로비에서 설날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김정우 목사(9선교구)는 물질적으로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날이 올 수 있기를, 아침 일찍부터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다.

평소에는 장천홀 입구에서 진행했으나 날씨가 추워 홀 안으로 들어와 행사를 실시했다.

돌봄 행사는 원래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설날을 맞아 넷째 주 수요일로 바뀌었다. 1시간 30분 동안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으며, 이들에게 떡, 파스, 양말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이 전달되었다.

선물 중 성경 구절이 적힌 사탕 봉지는 김명진 권사(4교구)가 10여 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날 모든 선물은 안병철 권사(18교구)가 후원했다.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어르신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안 권사는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받을 때 보다는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은혜가 되며 그로 인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재관 장로는 "사회사업위원회가 지난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으로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광림교회에서도 여러 구제사업을 펼치지만 알게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으므로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곳을 찾아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는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제13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2025년 1월 19일(주일) 12시 30분, 예수와 홀에서 제13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가 은혜 가운데 열렸다. 예배는 예수와 홀을 가득 채운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사랑부 학생들이 김정석 감독회장과 한정희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부 운영위원장 및 법

인주간보호 운영위원회 임명식이 함께 진행됐고, 윤두중 장로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교사 임명식에서는 모범 교사와 5년, 10년, 20년, 30년 근속 교사에 대한 시상뿐 아니라 개근·정근 교사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특히 사랑부 첫 30년 근속 교사인 우형진 장로는 수상 후, 사랑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권면의 말씀을 통해 "사랑부 봉사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차별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귀한 사역"이라고 강조하며, 사랑부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랑부 사역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더 많은 공간과 지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열린 총회에는 재적 회원 94명 중 53명이 참석해 성원이 선언됐으며,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진행됐다. 2025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도 승인됐으며, 광림이레센터의 미술·음악 수업, 발달장애인 음악회, 다양한 캘린더 및 굿즈 제작 사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예술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수익성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모든 안건은 동의와 박수 속에 통

과됐다. 모든 순서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이 사랑부의 헌신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했다. 이번 행사는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랑부 위원장이자 올해로 30년 근속 시상을 받은 우형진 장로는 소감에서 "망설임 끝에 사랑부 신입교사를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당시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었고,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시다.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리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혜선 기자

청년부

필리핀, 태국 해외 단기선교 진행 중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



LFC 청년선교국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세 나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1차로 필리핀과 태국을 다녀왔고, 2월에는 2차로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42명의 청년들이 '가는 선교사로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아이타, 필리피노 현지 교회 방문
지난 1월 10일(금), 필리핀 카멘시타 지역으로 출발한 단기선교팀은 아이타 민족과 필리피노 민족을 위해 세워진 9개의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산속에 살면서 구황작물만 먹던 아이타 성도님들에게 닭죽과 판싯(볶음면)을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

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8개 교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어리딩, 부채춤, 수화, 태권도, 킥타, 미술 등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두 민족이 갈등을 넘어 주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학생들이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팀의 심명진 형제(청년 9교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일궈내신 열매와 교회들이 세워진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삶과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루엠타이 지역 방문
태국팀은 1월 16일(목)에 출국하여 치앙마이와 루엠타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방문, 피딩 사역, 예배 인도, 성극 공연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광림교회의 해외 선교를 통해 성장한 현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인도를 맡아, 청년들

과 현지 교회 간의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현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 훈련과 영적 지도를 통해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팀의 박현서 형제(청년 2교구)는 "2018년에 만났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소망을 느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열매를 보며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선교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2월에는 베트남으로 단기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LFC 청년들을 통해 열방을 부요케 하시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김세열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2025년 첫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받은 은혜의 시간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된 2025년, 새해를 맞아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다녀왔다. 1월 18일 오전, 교회 버스에 몸을 싣고 청장년1,2부 연합 탐방팀은 소풍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박물관 입구 방명록에는 이곳을 꾸준히 찾는 성도들의 발길을 볼 수 있었다. 1층 전시관에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성경과 성도들의 생활 백서 등 각종 문헌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이 담긴 선교사 가방, 또 당시 서민들을 위해 그림으로 설명한 계시록, 예수 재림도 등 다양한 기독교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3층 선교사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흑백으로 전시된 연합회, 학당, 의료선교원 등 초기 성도들의 다양한 단체 사진들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마음에 무게와 함께 연결성을 느꼈다. 한국에 작은 밀알로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신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름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야외 박물관에는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당을 1/5 크기로 재현한 1차 모형이 있는데, 그때와 똑같이 남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회개의 뜨거운 부흥을 이루었던 당시 성도가 된 듯, 신발을 벗고 장판에 무릎을 꿇고 웅기종기 앉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 벽 넘어 들리는 남성 성도들의 합창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청장년부 담당 황지수 목사의 인도로 짧은 예배도 드렸다. 깊은 밤과 같이 어두운 시절을 지나 신앙을 지켜 증인이 된 선배들의 생활을 떠올리며 지금의 편안한 생활이 문득 부끄러워졌다.

청장년1부 문아름 성도는 "선교의 역사가 담긴 기록들을 살펴보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땅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대대히 전하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함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장년2부 손영진 성도는 "이번 한국 기독교 역사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에 심어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보며, 주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

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장년부는 초기 교회의 뜨거운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어오길, 또한 평양에 장대현과 같은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기도했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는 청장년부



2023년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라고 합니다. 1990년 조사 이후 계속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 35세 이상의

미혼 세대로 구성된 청장년 1부와 신혼 세대로 구성된 청장년 2부가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외적으로 우리의 외모가 성인에 가깝게 변화하며, 내적으로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청장년 세대는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를 통해 선택하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어떤 이들은 삶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곧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유

함을 위해, 자신의 가산이 조금 더 넉넉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서로 다른 행위의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부는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했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노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계속 제자리에 맴돌게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끝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선택을 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에서 멈추거나, 내 집을 장만하는 것에서 멈추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거나, 어떤 특정한 유익을 바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청장년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청장년 세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황지수 목사(청장년부)

광림남교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1월 17일(금)~18일(토) 이틀 동안 광림남교회 유년부와 초등부는 “Dream?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9)의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광림남교회와 눈썰매장, 에버랜드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 유년부는 오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빙고게임을 진행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소프트볼 야구 - 기도를 올려라!, 요셉 이야기 성경퀴즈, 요셉의 옷 꾸미기를 통해 요셉의 일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부는 ‘요셉의 일생 꿰뚫기’ - 창세기 37장 ~ 45장 통독, 요셉의 성 입체 퍼즐을 만들며 요셉 이야기 전개해보기, 주제 성구와 주요 성구 암송하여 킵 쌓기를 진행하며 요셉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선영진 목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

람, 한 사람에게 꿈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주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시간을 통해 목사님께서 한명씩 안수기도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유년부는 눈썰매장으로, 초등부는 에버랜드로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친구를 통해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신이 소중한 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중한 꿈을 주시며 그 꿈을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월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유아, 유치부 겨울 소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와 겨울성경학교, 겨울 소풍을 통해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미라 전도사(초등부)

동탄광림교회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주일이었다던 지난 1월 12일(주일) 동탄 성전에서는 75교구 경조총회, 남여 연합신교회, 주일 저녁 임원헌신예배 등이 드려졌습니다. 주일예배 후 성도님들이 자리에 남아 경조총회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한 해 동안의 경조 활동 내역 보고, 회계보고, 경조 임원진과 신천 임원의 소개 등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동탄 성전에 새롭게 등록하고 정착하신 성도님들께 경조 회의 회칙과 운영 방안, 감람동산 이용 안내를 소개하고 광림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신천권사와 신천집사로 임명되신 세 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 공해 주신 따뜻한 떡으로 인하여 경조 총회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경조총회 후 실시된 남·여선교회에서는 약 50여 명의 남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개체 선교회별 임원진 소개, 2025년 운영 방안을 토의했으며 남·여선교회 모두 모이기에 힘쓰고 선교의 역량을 키워 하나님 나라와 광림 제단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회원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각 위원장, 경조회 임원, 남·여선교회 임원, 속장, 교회학교 부장, 청년회장 등

임원들의 헌신으로 저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임원들은 특송으로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를 부르며 헌신과 결단을 다짐했습니다.

유제석 목사는 ‘작지 않다(고전 4:1-2)’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을 맞이하는 동탄광림교회는 매주 교회학교 포함, 230~24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을 변화시키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연초부터 새가족들의 등록이 이어지고, 새가족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우리 광림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부름받은 청지기들을 통해 동탄 성전이 한 번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우 권사(75교구)

2025년 임원전지훈련, 거룩한 사명자로 헌신 다짐해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골 1:27)



임원전지훈련은 광림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1980년부터 시작되어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집사, 권사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새해에도 신진 임원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림교회 목회의 방침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차 임원전지훈련은 1월 8일~9일 집사를 대상으로, 2차는 1월 15일~16일 권사를 대상으로

로 열렸으며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본당,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임원들은 매시간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여선교회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또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재단,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의 아픔을 아뢰며 더욱 눈물로 부르짖었다.

1차 훈련에서는 김종필 감독(이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중앙연회 12대 감독)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눅 24:49)라는 말씀을 전했다. 1월 15일(수) 열린 2차 성령 부흥 집회는 유병용 감독(브니엘교회 담임목사, 서울남연회 18대 감독)이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단 6:1-10)이라는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었다.

유병용 감독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웠으며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던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광림의 임원들이 올 한 해 다니엘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영적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6일(목) 강의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골 1:27)의 비전을 나누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그 복음의 감격을 소유한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 잠비아 미션센터 기숙사동, 교육동, 채플 건축 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자. 임원들이 먼저 거룩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참석한 모든 성도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올해도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원전지훈련을 마무리했다.

소현수 기자

365일, 24시간 쉼 없이 기도의 제단 쌓아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 - 김도옥 장로



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하는 조와 주일 1~4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조당 최대 4명의 조원이 있으며,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기도하는 철야팀과 지정된 요일 1시간 30분씩 기도하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기도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 방법은?

중보기도실은 본당 1층 통로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는 성도는 중보기도실 앞에 비치된 중보기도 요청서에 긴급이나 일반 기도 선택 후 교구, 성함, 기도 제목을 정자로 정성스레 적어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큰 글씨로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중보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요청은 3개월 동안 기도를 드리기에, 장기 기도를 원하신다면 다시 작성해 주시거나 기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꼭 응답되었다고 기도함에 넣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기도를 잘 해야만 중보기도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직분과 관계없이 누구든 오셔서 함

께 기도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중보기도실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담은 14권의 파일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찾고 자 하는 분, 주 1회, 한 시간 반을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로 헌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4. 중보기도위원회의 자랑은?

하나님과의 쉼 없는 호흡을 위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시간 항상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이자 성도들에게는 든든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위원들은 누군가 인정해 주거나 봐 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 갑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는 분, 3~40년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 2025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는?

올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딤후 2:2)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중보기도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드러내는 영적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매일 전진하는 중보기도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난국을 타개할 많은 믿음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요청 및 문의 : 02-2056-5639

박희윤 기자



1995년, 119명의 중보기도자로 시작된 중보기도위원회는 현재 본당,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의 300명이 넘는 기도 용사들이 세계 열방과 나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8년째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도옥 장로를 만나 중보기도위원회에 대해 물어보았다.

1. 중보기도위원회는 365일 24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광림교회 중보기도위원회는 월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5



인간의 욕망, 바벨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 11:6~7)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다양한 종족이 갈라져 나와 많은 부족이 형성되었고, 인류는 다시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에는 인류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노아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평야에 모여 살았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라는 취지 아래 성을 짓고, 바빌론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만족한 이들은 종족의 집결지가 될 만한 곳에 높은 탑을 쌓았다. 이름하여 그 유명한 바벨탑(Tower of Babel)이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를 닦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한곳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하늘에 도전하려는 인간들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쌓느라 분주한 그들에게 그전까지 하나이던 언어를 모두 뒤섞어 버렸다.

그들이 공통으로 쓰던 말을 잊어버리자 짓고 있던 비계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만약 집을 지을 때 일꾼과 십장, 건축가가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을 각각 말한다면 그 집 공사는 도저히



▲ 바벨탑_ 하나님은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하여 본래 하나이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여 인간들을 흩어 놓았다. 피테르 브뤼헬 작품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같이 자네기를 포기하고, 탑 아래로 내려와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른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1~3)

노아의 장자 셈의 9세손인 아브람은 고향 갈대아 우르(현재의 이라크 지역)를 떠나 하란 땅(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람은 조카 롯과 아내 사래와 함께 하란 땅을 떠났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아브람이 살던 당시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_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이 그의 가족과 무리를 이끌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며, 그를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다. 모나르 주즈프 작품

평화를 존중하던 아브람은 그들의 다툼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결국, 아브람을 따르는 무리는 그와 함께 했다. 아브람은 남자들에게 천막을 걸으라고 명했고, 양들도 불러들였다. 여자들은 침실용 양탄자를 꾸리고, 사막의 여행에 대비해 음식도 장만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히브리 민족의 이동이 가나안을 향해 시작되었다. 당시 아브람과 아내 사래 사이에 남자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조카인 롯에게 무리를 이끌게 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